

해방기 전후의 박화성 문학 활동 연구

남은혜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목차

- 1 들어가며
- 2 문단과의 거리와 전향의 문제
- 3 서울 문인과의 교류와 목포 문인 네트워크
- 4 나가며

이 논문은 2022년 10월 22일 제16회 소영 박화성 문학페스티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한 것이다. 토론을 통해 도움을 주신 김윤정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문학사에서 2세대 신여성 작가 혹은 동반자 작가로 인식되어 온 소영 박화성(1903~1988)은 1925년부터 1985년까지 17편의 장편소설과 66편의 중·단편소설을 창작하였다. 이러한 박화성의 문학이 충분히 주목되지 못한 것은 일제 강점기 문학에 비해 해방 이후의 성과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박화성은 1938년부터 해방 전까지 절필했으나 이 시기는 공백기가 아니라, 박화성 문학 전후반부의 의미를 연속적인 시각에서 규명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일제 말기부터 해방기를 거쳐 한국전쟁에 이르는 시기 박화성의 문학은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면서 변화의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해방기를 전후한 박화성의 행적과 문단 상황을 연계하여 논의하면서 절필했던 시기에 ‘목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박화성의 문학 활동을 조명하고자 한다. 지역문인들과의 네트워크에 주목함으로써 사상운동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문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속해나가고자 했던 박화성의 작가의식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방 후 박화성은 전향하지 않고 목포의 문인들과 교류하며 문학 활동을 재개하였고 좌익 탄압이 강화되던 1947년 조선문학가동맹 목포지부장으로 추대되었다. 한편, 이광수의 추천을 받은 「추석전야」(1925)로 등단하면서 시작된 민족주의 진영 문인들과의 교류도 해방 후에 계속되었고 이는 목포 문인 네트워크와 병행되면서 박화성 문학의 특수한 입지를 가능케 했다. 그 중심이 된 목포라는 장소는 박화성의 존재로 인해 서울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진영의 문인들과 다양한 사상을 기반으로 한 지역 문인들과의 네트워크가 겹치는 곳으로서 해방기 문학의 특수한 사례를 보여준다. 지역 문인이자 여성작가였던 박화성의 활동은 민족문학 담론을 주도하고자 했던 좌우익문단 어느 한 쪽에 속하지 않으면서, 여성을 비롯한 하위주체를 건국의 주체로 포함하는 해방기 문학의 한 면모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새롭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국문핵심어: 해방기, 공백, 절필, 조선문학가동맹, 전향, 지역 문학, 목포, 로컬리티

1 들어가며

문학사에서 2세대 신여성 작가 혹은 이른바 ‘동반자’ 작가로 인식되어 온 소영 박화성(1903~1988)은 1925년 등단하여 1985년까지 17편의 장편소설과 66편의 중·단편소설을 창작하였다. 1923년 『자유예원』의 단편 「팔삭동」(미간행 일실)을 거쳐 정식 등단작 「추석전야」(1925) 발표로 시작된 박화성의 문학은 1985년 마지막 작품 「달리는 아침에」까지 그야말로 가열차게 이어졌다. 그럼에도 박화성의 문학이 그동안 충분히 주목되지 못한 이유는 일제 강점기 문학의 작품성이나 문학사적 의의에 비해 해방 이후의 성과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선행 연구는 대부분 일제 강점기 소설이나 1950년대 이후 한 쪽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박화성 문학의 가장 중요한 연구자인 서정자는 60년 동안 이룩한 박화성 문학의 방대함을 그의 문학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으로 꼽으면서 박화성 문학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작품에 집중되었고 그중에서도 단편에 대한 비중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런 맥락에서 박화성이 일어로 글쓰기를 거부한 기간, 문단과 거리를 두고 겪었던 시련을 보여주는 해방공간의 수 편의 작품들과 한국전쟁 이후의 문학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¹ 본고에 시사점을 준다. 서여진은 기존 연구사가 박화성 작품에 나타난 계급의식과 여성의식이 불화하는 양상에 주목했다는 점을 제기하고 신여성이자 사회주의자였으나 여성가장의 무게를 짊어졌던 작가 박화성의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² 김영미 또한 여성작가들의 환경과 배경이 1930년대 여성작가의 활동에 대한 해석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으면서³ 박화성 문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박화성의 삶과 문학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
- 1 서정자, 「박화성의 문학 지도」, 『홍수전후』, 푸른사상, 2009, 서정자·김은하·남은혜 공편, 『박화성 앤솔리지 나는 여류작가다』, 푸른사상, 2021 재수록, 364-365쪽 참조.
 - 2 서여진, 「신여성-사회주의자-여성 가장으로서의 작가 박화성」, 『현대소설연구』 제82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1.
 - 3 김영미, 「‘여성’으로서 ‘작가’가 된다는 것: 박화성의 1930년대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64호, 한국현대문학회, 2021, 177쪽.

작품의 변화를 새로운 방향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선행연구의 문제의식은 해방기⁴를 전후한 박화성 문학을 대상으로 한 본고의 참조점이 되었다. 본고는 1930년대 후반부터 한국전쟁 전까지 박화성의 문학과 관련된 활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문단과 문학사의 맥락과 연계하여 논의하면서 박화성 문학에 대한 단절적 시각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먼저 박화성의 해방기 문학이 중요한 이유와 그에 대한 연구가 해방기를 전후한 넓은 시야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60여 년 동안 이어진 박화성의 창작 활동에서 눈에 띄는 긴 공백은 시 「유랑의 소녀」(1925) 이후 동화 「옛단지」(1932)가 발표되기까지의 시기와, 「호박」(1937) 이후 수필 「유달산에 올라」(1945)를 발표하기 전까지 두 차례이다. 첫 번째 공백기에 대해 작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어디에선가 내 문단 경력기록을 보니까 1926년부터 1931년까지는 공백기간이라고 거침없이 써 있어서 나는 그들의 피상적인 판단에 아연해 하였다. 그들이 공백기라고 하던 그 기간에 잠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해 본 나는 학과 전공 틈틈이에서 내 소설의 소재를 살려 기어코 장편의 초고를 작성하느라 피땀의 노고를 하였었다.

한 작가에게 있어 공백기가 있을 수는 있을 것이며 그 공백기에 이어서 완전히 허물어지는 작가도 있기는 하리라. 그러나 그 작가의 전후의 경력을 자세히, 정확히 살피지도 않고 편견을 앞세워 공백기간이라고 못박아 놓으려는 단평은 지극한 금물이 아닐 수 없다. (밑줄 강조, 인용자)⁵

누군가 쉽게 ‘공백’이라고 말했던 때 박화성은 첫 장편—이자 여성작가의 첫 신문연재 장편소설인—『백화』를 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더 길

4 본고에서는 해방기를 한국전쟁 발발 전까지로 논의한다.

5 박화성, 「나의 교유록 원로 여류가 엮는 회고 30 「백화」 출판기념회」, 『동아일보』, 1981.2.12.

었던 1938년부터 해방까지의 공백기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박화성은 이 시기에 절필과 은둔을 선택함으로써 협력과 전향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⁶ 이러한 인식은 작가의 회고에서 비롯되었는데 아래는 자전적 장편소설⁷ 『눈보라의 운하』(1963)의 해당 부분이다.

일천구백사십년이 되자 일본정치는 극도의 포악성을 띠어 창씨개명을 강요하고 글도 일어로 쓰라는 명령을 내렸다. (...) 일어로 소설이나 수필을 쓰다니 그런 망발이 없다고 생각한 나는 가정적으로 대단히 변잡한 시기니까 단연코 당분간 붓대를 꺾으리라고 작성했다.

그러나 후배는 양성해야 되겠기에 학생 중에서 문예에 뜻을 가진 사람이나 몇 사람의 당지 출신 문학청년들을 자주 만나면서 약간의 지도를 했다. (밑줄 강조, 인용자)⁸

물론 선행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거나⁹ 해방공간의 작품과 그

6 류진희, 「해방기(1945~1948) 감정의 전환과 젠더 동학: 여성작가의 소설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28집, 구보학회, 2021, 438쪽 참고.

7 1963년 『여원』에 연재되고 1964년 단행본으로 발간된 이 작품은 ‘자서전’으로 쓰였지만 소설적인 구성과 서술을 갖추고 있다. 자서전이라고 해도 모든 서술을 역사적 사실로 볼 수는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최대한 다른 자료와 교차 비교하여 확인이 가능한 부분을 활용하고자 했다. 박화성의 회갑을 기념하는 박종화의 글에서 “우리 민족의 수난사요 우리 문단의 측면사요 화성여사의 자서전이요 한국여성의 측면사”(박종화, 「박화성여사 육십일세 壽序」, 박화성, 『눈보라의 운하』, 芝苑社, 1970)라고 평가했던 것처럼 작가 박화성의 자전적 서사를 통해 한국 사회와 문단, 여성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기존 연구사에서는 박화성의 생애 이력을 확인하는 사료처럼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혹은 어떤 부분을 축약하거나 쓰지 않았는지를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박화성의 시대인식과 작가의식을 규명할 수 있는 텍스트라는 점에서 새롭게 논의되어야 할 작품이기도 하다.

8 박화성, 앞의 책, 263~264쪽. 이후 인용 시 작품 제목과 쪽수만 표기. 박화성은 높은 고료를 주겠다고는 이익상의 청탁을 『매일신보』가 총독부 기관지라는 이유로 거절하였다고도 하였다. 박화성, 「나의 교육록 원로 여류가 엮는 회고 33 일어로 번역된 「한귀」」, 『동아일보』, 1981.2.17 참조.

9 김종옥은 한국어말살 정책을 절필의 이유로 내세운 것이 1930년대 후반의 역사적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뢰하기 어렵다고 짚고 프로문학과의 관계를 포함한 문단적

역학 작용을 감안하면서 해방 이후를 논의해야 한다는 넓은 시야의 연구도 진행되었다.¹⁰ 또한 사회주의적 서사가 불법화되어가던 1930년대 중반에 농민과 노동자 문제에 대한 모색이 재난 서사로 결실을 맺고 있다는 서승희¹¹의 문제의식을 참조하여 박화성의 해방기 연구도 새로운 방향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문제의식과, 절필기가 공백이 아닐 수 있다는 작가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본고에서는 해방기 박화성 문학의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 1930년대 후반부터 한국전쟁 전까지를 폭넓게 보면서 “작가의 전후의 경력”을 확인하고자 했다. 일제 말과 해방기를 거쳐 한국전쟁에 이르는 기간 동안 박화성은 ‘절필과 은둔’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보다 복잡한 상황을 뚫고 나가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화성의 개인적인 상황과 조건을 표면적으로만 보는 태도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한 선행 연구에서는 박화성이 맑스주의자 남편과 이혼한 후 부르주아 남편과 결혼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박화성이 계급의식을 드러내는 작품을 쓰지 않고 남편의 경제력으로 식민지 말기를 보내며 해방까지 문학 활동을 접었으며 해방과 한국전쟁 뒤에는 대중 소설 작가로 활동하였다고 논의하였다.¹² 그러나 박화성이 김국진¹³과 결별하고 천독근과 재혼을 결정하는 것을 박화성의 사상적 전향으로 독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박화성은 어린 자녀들을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고 사상운동을 위해 용정으로 오라는 김국진의 요청에 응할 수 없었

상황이나 목표의 상황을 아울러 봐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김종욱, 「일제강점기 박화성 소설의 지역성 연구-동반자작가로서의 위상과 관련하여」, 『한국현대문학연구』 제42호, 한국현대문학회, 2014, 210쪽 참고.

- 10 서정자는 박화성의 해방공간 소설에 대한 연구에서 1938년부터 1955년까지를 함께 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서정자, 「박화성의 해방 후 소설과 역사 의식」, 『현대소설연구』 24,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50-51쪽 참고.
- 11 서승희, 「식민지 재난과 통치, 그리고 재현의 역학-박화성의 홍수 전후 한귀, 고향 없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제54집, 이화어문학회, 2021, 108쪽 참조.
- 12 전희진, 「식민지시기 문학의 장에서의 여성 작가들-2세대 여성 작가들의 작품과 삶의 경로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93집, 한국사회사학회, 2012, 34-35면 참고.
- 13 일본 유학 시절 만난 김국진은 1931년 반전데이 뼈라 사건으로 3년 언도를 받고 복역하여 박화성은 원고료로 생계를 꾸리며 옥바라지 하였다. 출소 후 용정으로 간 김국진은 아이들을 박화성의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고 사상운동을 함께 하자고 하였으나 박화성은 이를 거절하고 그와 이혼하였다.

고 박화성의 창작 활동에 대해 비협조적이었던 김국진과 달리 천독근은 박화성의 문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박화성은 일제 말기와 해방기를 거치며 시대적 상황이 변화하는 동안 사상적으로 전향했다기보다는 작가로서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였다. 그것은 목포의 문인들과 교류하고 후배 문인을 지도하는 것이었는데 이 활동의 의미가 지금까지 충분히 규명되지 못했다. 서정자는 「추석전야」와 1930년대 몇몇 작품을 분석하면서 여성이자 사회주의 운동가이기 이전의 박화성을 키워 낸 자양분이 목포에 있었다는 점에 주목한 바 있는데¹⁴ 본고에서는 창작이 어려워진 시기에도 박화성의 문학 활동에서 목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했다.

일단 확인할 것은 박화성이 1937년 9월 이후 해방까지 왜 작품을 창작하지 않았을까하는 점과 왜 해방 이후에도 한동안 소극적으로 활동했는가는 점이다. 김종육은 이에 대해 『동아일보』가 무기정간되고 『신동아』, 『신가정』이 폐간되었으며 이광수도 수감되면서 박화성에 대한 중앙문단의 관심이나 발표 가능한 매체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논의하였고¹⁵ 김선태는 우리말 사용 금지와 검열, 재혼에 따른 시간 부족이라는 복합적인 이유를 제시하였다.¹⁶ 먼저 조선말로 글을 쓸 수 없어, 창작한 작품을 해방 후에 발표하며 주목받았던 작가로 황순원의 사례가 있다. 그러나 박화성은 일제 말에 창작 자체를 하지 못했고 해방 직후 발표한 작품들도 수필 위주였다. 일본말로 창작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절필 이유 외에 고려할 것은 앞의 인용에서 “가정적으로 대단히 번잡한 시기”로 표현한 것처럼 1936년, 목포의 사업가였던 천독근의 청혼을 받고 1938년 재혼 후 아내와 어머니,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느라 겨를이 없었다는 점이다. 박화성은 김국진과의 사이에서 탄생한 자녀들을 키우면서 1938년부터 1941년까지 천승준, 천승세, 천승걸 3형제를 낳아 키웠고 사업가인 남편을 지원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했다. 『눈보라의 운하』에 따르면 천독근은 도회의원, 부회의원, 상공회의원, 전국 섬유조합 이사에 전남 섬유조합 이사장까지 맡고 있었다고 한

14 서정자, 「식민지 근대도시형성과 목포 유·이민소설: 작가 박화성의 사회의식 발아와 그 근원」, 『여성문학연구』 제5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1, 155쪽 참고.

15 김종육, 앞의 글, 230쪽 참고.

16 김선태, 『목포문학사와 전남시단사』, 태학사, 2019, 27쪽 참조.

다. 1942년 원고청탁이 뜸해졌다는 것을 기록하면서 “가슴에서 꿈틀거리는 창작욕의 억압은 매일 기록하는 일기장의 페이지 마다에서 아빠(남편, 인용자)를 원망하는 문구로 나열”¹⁷되었다고 한 데서 결혼한 여성에게 가해지는 전방위적 압력으로 창작에 임할 수 없었던 형편이 잘 드러난다.

그러나 여성작가로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은 재혼 전에도 다르지 않았다. 김기진¹⁸이 목포 자택을 방문하여 이루어진 1936년 작가의 인터뷰에서¹⁹ 박화성은 좋은 작품을 내놓고 싶은 소설가로서의 플랜을 얘기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해서 한 삼년간 몸과 머리를 좀 쉬었다가 다시 붓을 잡고 좀 더 새로운 역작을 다문 한 편이나마 내어보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질필과 관련하여 시대적인 상황과 개인적인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데 박화성의 공백 직전 작품 중 「불가사리」(1936)의 내용과, 비슷한 시기에 의원²⁰ 경력을 시작한 남편 천독근의 행적을 겹쳐보면 박화성의 창작이 어려웠던 내면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불가사리」는 환갑을 맞은 창수 노인

17 박화성, 『눈보라의 운하』, 270쪽.

18 김기진과 김복진 형제는 박화성의 첫 남편 김국진과 긴밀한 관계였고 김국진이 1934년 복역을 마치고 나오자 용정 동흥중학교 교원으로 가게 주선하였다. 동흥중학교에는 강경애의 남편이 교사로 있었고 그로 인해 박화성은 김국진과 이혼하기 전 강경애와도 만나 교류하였다.

19 1936년 “딸 둘, 아들 하나”를 데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며 남편은 “지금 間島 모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김팔봉, 「女流作家 訪問記(其一)」, 『삼천리』, 1936.8.)라고 하였으므로 이때까지는 김국진과의 관계가 공식적인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들은 월계화」(1936.8), 「호박」(1937.9)이 발표되었으므로 혼자 가계를 꾸려가는 어려운 중에서도 창작과 발표를 이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 도회의원 제도는, 1/3의 도지사 임명(관선)은 그대로 두고 2/3의 후보자 선출에 의한 임명제를 각 선거구의 부·읍회의원, 면협의회원 선거를 통한 선출제로 바뀌면서 민의에 기초한 것처럼 했지만 사실상 제한 선거였고, 의결기관인 도·부·읍회, 자문기관인 면협의회 의장은 지방행정의 수장인 도지사, 부윤, 읍면장이었으므로 일원적인 지배구조는 여전히 강고했다고 평가된다(전성현, 「일제강점기 ‘지방의회’의 ‘정치적인 것’과 한계-경남도회를 통한 식미지배와 지역정치에 마주침, 『역사연구』 제39호, 역사학연구소, 2020, 63; 71쪽 참고). 또한 지방세 납부액이 연 5원 이상인 자들만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졌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지적되었다(동선희, 「일제하 경남 지역 조선인 읍회의원에 관한 연구-1920~1945년의 지정면협·읍회의원, 『청계사학』 20, 2006, 191쪽 참조).

과 그 아들들(기업가이자 도평의원, 의사, 변호사, 도청 주임)을 비판적으로 그리면서 사상운동을 하는 아들 병훈이 자신의 가족들을 조소하고 저주하며 집을 떠나는 결말로 구성된 작품이다.²¹ 작가는 1936년 작품에 사상운동으로 수감되었던 아들과 체제협력적인 가족들을 대조하며 강하게 비판한다. 그런데 천독근은 1937년 목포부 ‘도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²² 1939년에도 조선부·읍 ‘회의원’의 무안 당선자로 확인된다.²³ 이러한 경력은 『눈보라의 운하』에도 기록되었고 화자는 남편이 이러한 경력들로 인해 해방 후 친일파로 몰렸으나 ‘신사참배’한 번 하지 않았다고 결백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운 도 평의’ 하는 빛난 이름은 자기가 관할하는 여러 회사의 사장이란 짧은 이름보다 얼마나 귀하고 화려한”(211면)지를 만족해하는 인물을 비판하던 「불가사리」의 작가의식을 견지하면서 창작에 임하기는 어려운 환경이었을 것이다.

물론 중요한 것은 이 시기 남편의 행적과 상관없이 박화성은 일본어로 창작하거나 대일협력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이며,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작품은 창작하지 못했지만 문학 활동을 멈춘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앞서 인용한 부분에서 ‘후배 양성’과 ‘지도’로 표현된 것처럼, 박화성은 목포에서 지역 문인들과 교류하며 후배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화성의 개인적인 상황과 목포 문인들과의 관계라는 점이 규명되면 선행연구의

21 “송도 말년에 불가사리라더니 네놈(병훈, 인용자) 때문에 내 집은 망하고 말어.” (…)
“옳소. 아버지 말씀대로 형님들 말씀대로 나는 이 집을 기어코 망해먹고 말겠소. 나는 기어코 송도 말년에 불가사리가 되고 말 테니 두고 보시오. 윤 씨 집 말년에 병훈이라는 불가사리가 있듯이 이 세기 말년에 몇 천만 개의 불가사리가 있는지 아시오? 흥 당신네들은 몇 백 년이나 이대로 잘 살아갈 줄 알지마는 우리 같은 불가사리가 있는 한에는 당신네들의 신세도 불 앞에 나비 같을 테니 두고 봐요 두고 봐.” 서정자·김은하·남은혜 공편, 앞의 책, 228쪽.

22 「朝鮮總督府官報」(1937.7.6;8;13).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setId=3&totalCount=3&itemId=su&synonym=off&chiness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types=&searchSubjectClass=&position=2&levelId=su_011_1937_05_10_0350&searchKeywordType=BI&searchKeywordMethod=EQ&searchKeyword=%EC%B2%9C%EB%8F%85%EA%B7%BC&searchKeywordConjunction=AND 검색일, 2022.10.6.

23 「전 조선부·읍 (14부68읍) 회의원 선거 총 전과 발표」, 『동아일보』, 1939.5.24.

논의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일제 말기부터 해방기를 거쳐 한국전쟁에 이르는 시기의 박화성 문학을 ‘공백기’가 아니라 박화성 문학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면서 변화를 잠재하고 있는 점이성을 가진 시기로 보았다. 그 중심이 된 ‘목포’라는 장소는 박화성의 존재로 인해 서울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진영의 문인들과 다양한 사상을 기반으로 한 지역 문인들과의 네트워크가 겹치는 곳이 되어 해방기 문학의 특수한 사례를 보여준다. 권영민은 해방 후 한국문단이 식민지 시대 문화에 대한 청산과 스스로에 대한 반성을 목표로 하였지만 문학적 이념의 갈등이 치열하게 벌어졌다는 점을 논하면서, 좌익문단의 민족문학은 계급문학으로 귀착되며 문인들의 집단월북으로 이어지고 우익문단의 순수문학론은 문학의 협애성으로 이어졌다고 논의하였다.²⁴ 이를 참고할 때 박화성의 이 시기 문학은, ‘중간파’로 지칭되었던 움직임과는 또 다른 방향에서 해방기 한국문학의 일면을 이루는 것으로서 의의를 가지지만 그간 제대로 연구되지 못했다. 다음 장에서는 해방을 전후한 박화성의 활동이 좌익문단 주도 세력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재개되고 이어졌는지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2 문단과의 거리와 전향의 문제

해방 이후 의외의 방향 전환을 통해 좌익에 합류한 수많은 문인들의 존재²⁵를 의식할 때 오히려 박화성의 해방기 행적은 사상운동이나 단체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면모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의아하다. 그러나 박화성은 해방 이후 기존의 사상에서 전향하지도 않았고 기존 사상을 강화하며 본격적으로 활동하지도 않았는데 그 이유와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화성의 대표작 「하수도 공사」(1932)나 장편 『백화』(1932)를 비롯하여

24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1945-1990』, 민음사, 1993, 53쪽 참조.

25 해방은 송영, 엄홍섭, 김남천 등과 같은 카프작가들에게는 덮어두었던 좌익이념의 적극 구현의 장을 제공하게 되었고 안동수, 윤세중, 이동규, 이근영, 김학철 등과 같이 좌익 성향이 있었던 작가들에게는 좌익이데올로기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조남현, 『한국 현대소설사 3』, 문학과지성사, 2016, 59쪽.

1930년대의 활동이 이광수와 그의 영향력이 미치는 매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목포의 사상운동가들과 불편한 관계였을 것이라는 점은 김종육의 연구에서 논의되었다.²⁶ 그런데 기업가 남편이 의원 활동까지 지속하면서 박화성과 목포의 좌익 세력과의 관계는 더 악화되었을 것이다. 이는 해방 직후 자신에게 냉랭하던 당지의 좌익 세력 지인들을 회고하거나, 한국전쟁 전시에 남편과 헤어질 것을 강권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대해 서술했던 『눈보라의 운하』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²⁷

나는 이 밤(8·15, 인용자)에 잠들 수 없어서 꼭 누구에게론가 가고 싶었다. 한때 마음이 맞았던 친구들이지만 내가 천 씨와 결혼하자 가난한 월급쟁이를 큰 기업가(물론 사장이긴 하니까)로 잘못 알고 부르주아의 아내라고 경원(敬遠)했었다. (...) 다음 날 나는 그들 중의 하나를 찾아가다가 이미 축하행렬의 선두에 서서 오는 친구를 만나자

“여봐요!”

하고 그의 손목을 툇 잡았더니 그러지 않아도 빼뜨림한 입술을 더 빼죽이 하면서

“당신이 뭇 때문에 기쁠꼬?”

하는 영남 말투로 탁 쏘고 내 손목을 스르르 터는 것이 아닌가? (...) 김씨라는 그 여인은 (...) 부인회의 회장이 의외의 인물이 되었다고 하면

26 김종육, 앞의 글 참조.

27 [9월 4일 서울에서 피난길, 9월 16일 고향 도착, 인용자]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 준 증명서에는 군정 때 고향 문학가동맹 지부장이던 나의 그 옛 직함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곳곳마다에서 우리는 갖은 문초를 받고 룡색의 조사를 받았다. (...) 남편의 안위가 근심이 되어서 눈만 뜨면 그 초라한 물골로 정치보위대와 인민재판소와, 인민위원회와, 시당이라나 하는 건물을 첩바퀴 돌 듯이 돌아다니며 그의 무죄를 증명하는 사실을 목에서 피가 든도록 역설했던 것이다. 해방이 막 되면서부터 나더러 이 집에서 탈출해야 한다던 몇몇 친구들은 이번에는야말로 꼭 그와 헤어지라고 간곡하게 말했으나 나는 엄숙하게 나무랬다. (...) 9월 28일 (...) 아빠랑 여중교장이랑 외의 십여 명은 놈들이 미처 어찌지도 못한 채 달아나고 말아서 밤에 가족들이 정치보위부에 들어가 문을 때려부수고 꺼내왔다고 했다. 박화성, 『눈보라의 운하』, 342-346쪽.

서 간부들의 이름을 외어 들리더니

“좌익 사람들이 많이 뽑혔다고들 해요. 내가 선생님을 추천하니까 친
일파의 부인이라고 아무개가 당장 반대합니다.”

그 아무개가 내게 면박을 주던 여인이자 바로 총지휘자격이 되었다는
것이다. (298-290쪽)

그리하여 1947년 2월 조선문학가동맹의 목포지부장으로 선출된 것 외에는 어느
진영으로든 박화성의 사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다.²⁸ 조선
문학가동맹의 목포지부장 경력에 대해서는 『눈보라의 운하』에 “2월에 문화단체
총연합회가 발족하고 조선문학가동맹이 전해부터인가 합법적인 단체로서 등록
이 되어서 고향에도 지부를 두게 되어 나는 고향의 선배라는 의미에서 절로 지부
장에 뽑히게 되었”(319쪽)다고 서술되어 있으나 언제까지 맡았으며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1947년 4월 작가의 일기에 사상으로 인해 남편과 갈
등이 있었다는 점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시기 상 조선문학가동맹 관련 활동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서정자의 연구에서는 “아침밥 때 사상 문제로 T(부군을
지칭하는 기호)와 충돌衝突되다. 以上 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부분
을 인용하며 해방공간에 소영 선생이 남편과 적지 않게 갈등했을 것으로 보았고
그로 인해 해방 이후 본격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해석하였다.³⁰

28 전조선문필가협회 참여 명단에 박화성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으나 박화성의 자발적 참여인
지 확인하기 어렵다. 조남현은 조선문학가동맹 주최의 전국문학자대회 초청자 230명의 명
단이나 전조선문필가협회의 442명의 추천회원의 명단 모두, 세를 과시하기 위해 본인의
의견을 묻지 않고 반대편 작가들의 이름까지 집어넣은 경우도 있어 의미부여하기 어렵다
고 논의하였다. 조남현, 앞의 책, 34쪽 참조.

29 ‘조선문학가동맹’ 등록이 취소되는 등 좌익에 대한 탄압으로 좌우익의 균형이 깨진 후 개
최된 「한국문학가협회 결성식」(『경향신문』, 1949.12.14.)에 대한 기사에서 “총래의 전국
문필가협회 문학부와 한국 청년문학가협회를 중심으로 기타 일반 무소속 작가와 전향문학
인을 포함한 전문단인의 총결속 하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문학단체로서 ‘한국문
학가협회’가 결성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추천회원 명단에 박화성이 포함되어 있으나 자
의에 의한 것인지와 활동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30 서정자, 「작가 일기1-박화성의 해방공간」, 『서정시학』 Vol.32 No.2, 계간 서정시학,
2022, 303쪽.

1930년대 중반에는 첫 남편 김국진의 옥바라지를 위해 전업 작가로서 창작에 매진했던³¹ 박화성은 한국전쟁 전후에도 가장의 책임을 져야 했고 이것이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 연재 장편 소설에 매진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므로 여성작가 박화성의 문학 활동에서 그의 가정사는 사적인 요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그의 창작과 문학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천독근은 해방 직후 친일파 시비를 겪고 치안대에 끌려가기도 하고 집에 도둑이 드는 등 고난을 겪었으며 1948년에는 반민특위 회부되었으나 수사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박화성의 장남 천승준은 이에 대해 “민선 도회의원이면서 식민지 수탈에 목적을 둔 ‘면화법’에 극렬 반대하고 항일투옥자 가족(박제민, 인용자)을 돕는 혐의로 일제의 요시찰인”이었다고 회고하여³² 그들 가족이 처해 있던 복잡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사상운동이나 문인 단체 등에 참여하지 않았던 박화성의 이 시기 시대인식이나 작가의식을 논의하기 위해 해방 후부터 한국전쟁 발발 전까지 박화성이 작품을 발표한 매체를 일별한 후 그 의미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다. 수필 「유달산에 올라」(『예술문화』, 1945.12), 「눈보라」(『예술문화』, 1946.1), 수필 「시풍형계」(『예술문화』, 1946.2), 「봄안개」(『민성』, 1946), 「과라술」(『호남평론』, 1947, 미확인), 「검정 사포」(『새한민보』, 1948), 「광풍 속에서」(『서울신문』, 1948), 「진달래처럼」(『부인경향』, 1950)이 이때의 작품들이다. 지역 매체인 『호남평론』³³과 『예술문화』³⁴를 통해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는 점

31 첫 공백 시기를 깬 동화 「옛단지」는 193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박세랑’이라는 필명으로 응모하여 당선한 것이었고 『백화』와 「하수도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료 문제를 제기한 수필 「여류작가가 되기까지의 고심담」(1935)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들에서 이미 다루어진 바 있다.

32 천승준, 「어머니 박화성의 풍경」, 서정자, 야마다 요시코, 송명희 편, 『박화성, 한국 문학사를 관통하다』, 푸른사상, 2013, 456쪽 참고.

33 특히 1930년대 지역 매체로서 중요한 『호남평론』은 1937년 이후 간행되지 못하다가 1950년 4월 제5권 1호가 발간되었다(전동진, 「잡지 담론의 근대성 연구: 『호남평론』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3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8, 145쪽 참고). 1930년대에는 박화성의 단편 「중국어날」(1935.11)이 수록되고 「그는 어떠한가 되었나」(1933.2, 미확인), 「호남 소년소녀 웅변대회를 보고」(1935.10, 미확인)도 게재되었으며 1947년 단

을 알 수 있으며 창간호였던 『부인경향』을 제외하면 당시의 주요 매체로는 『민성』³⁵과 『서울신문』이 확인된다. 주목되는 것은 두 매체 모두 1948년 12월 27일~28일 개최된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의 전국문화인 총궐기대회에서 좌경으로 지목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때 함께 지목된 출판사 ‘백양당’에서 박화성의 두 번째 창작집 『홍수전후』가 궐기대회 직전인 10월에 발간되기도 했다. 이 궐기대회의 문제성을³⁶ 고려하더라도 해방기 박화성의 발표 지면이 1930년대처럼 민족주의 진영과 관련된 매체들이 아니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매체의 성격뿐 아니라 이때 발표된 작품의 특징을 볼 때에도 작가가 전향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박화성은 해방 후 발표한 수필 「시풍형개」(1946)에서 “조선인으로써의 지조와 절개”를 지킨 시풍형(박제민, 인용자)³⁷을 수신자로

편 「파라솔」을 게재하였다. 천독근의 이름으로 확인되는 글도 있어 이후 확인이 필요하다. 「부인문제에 급(及)한 과학의 영향」(1935.7), 「현대세대의 통폐(通弊)」(1935.12), 「신년수감(隨感)-신년에 대한 소감」(1936.1), 「조선인 중소상공 발전방도-단결과 협동으로」(1937.1) 등이 목차에서 확인되는데 특히 「조선인 중소상공 발전방도-단결과 협동으로」는 필자가 ‘木浦織物株式會社 工場長 千篤根’으로 되어 있다.

34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논의.

35 『민성』은 조선문학가동맹 소설부 촉과 공동 주최로 1946년 4월 3일 서울의 초원다방에서 제1회 소설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조남현, 앞의 책, 31쪽 참조.

36 이 매체들은 선행 연구들에서 중립지로 인식되었고 특히 『신천지』와 『민성』은 당대 문화계에서 영향력 있는 월간지였다. 전지니, 「해방기 종합지 『민성』의 매체전략 연구: 창간~1947년 중반까지의 발행본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Vol.16, 한국근대문학학회, 2015 ; 이봉범, 「잡지 『신천지』의 매체 전략과 문학」, 『한국문학연구』 39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0, 조은정, 「해방 이후(1945~1950) ‘전향’과 ‘냉전 국민’의 형성: ‘전향성명서’와 문화인의 전향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49쪽 재인용.

37 박화성의 삶과 문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오빠 박제민(1900-1942)은 누이 박화성의 지원으로 와세다대학 유학 후 귀국하여 목포 청년회 활동을 하였고 1925년 전위동맹 결성하고 1926년 목포제유노조의 파업을 주도하다 체포되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조선공산당에 가입하였고 1930년 7월 조선공산당재건조직 계획사건으로 검거된 후에도 1931년 목포청년동맹, 목포노련에서 활동하였다(김경일, 『일제하 노동운동사』, 창작과 비평사, 1992;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대일보 중외일보 자료를 참조하여 정리한 이성운, 「1926년 목포 제유노조파업의 전개과정과 역사적 의의」, 『지방사와 지방문화』 23권 1호, 역사문화학회, 2020, 94쪽 참조). 그는 수감 당시 얻은 신병으로 고생하다 세상을 떠나 박

하여 일제 말 사상전환자들이 해방 후 “위대한 투사로써 소위 민족반역자들을 상대로 잘들 싸우고 있”다고 조소한다.³⁸ 또한 광복이 된 당시를 ‘눈보라’와 ‘광풍’ 속으로 지칭하는 시대인식이 당시 작품들을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³⁹ 창작집 『고향없는 사람들』(1947) 수록작은 물론이고 두 번째 창작집 『홍수전후』(1948)에 실린 「하수도공사」, 「혈어진 청년회관」, 「비탈」은 사상적인 경향이 오히려 더 두드러지는 작품들이라는 점에서도 박화성이 기존의 사상적 기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목포지부장에 선출된 1947년까지 당시 조선문학가동맹을 주도하던 인물들에게 박화성은 호명되지 않았고 문맹의 기관지 『문학』 수록작도 확인되지 않는다.⁴⁰ 이와 같은 좌익문단으로부터의 무관심과 소외는 1930년대와 동일한 양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상운동이나 문단의 중심이 모두 서울이었고 특히 좌익문단을 주도한 인물들과⁴¹ 박화성이 긴밀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해방기 박화성의 활동이 주목되지 않은 이유를 짐작해볼 수도 있겠다.

그러므로 당시 좌익문단을 주도한 세력으로부터 지역의 여성문인인 박화성이 소외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정자의 연구에서는 박화성의 사상적 전력으로 우익문단으로부터 소외되었고 ‘목포에 머물러 있기에’ 문단에서 외면을 당했다고 논의하였다.⁴² 그러나 한편으로는 좌우익문단 양측에 대한 박화성의 의

화성은 크게 상심하였다.

- 38 박화성, 「시풍형제」, 『예술문화』, 1946.2., 구명숙 외 편, 『한국여성수필선집 1945-1953』, 역락, 2012, 172쪽 재인용.
- 39 목포에서 발간된 『예술문화』에 실린 수필 「유달산에 올라」(1945), 「눈보라」(1946)에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 매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해방기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해방기 수필과 「광풍 속에서」(1948)를 중심으로 한 후속 논의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 40 ‘문맹 기관지’의 편집위원은 이태준, 임화, 김남천, 이원조, 안희남, 김기림, 한효, 권환이었다. 『자유신문』, 1946.4.15.
- 41 1946년 8월 10일에 창립된 조선문학가동맹 서울시지부는 위원장 김기림, 부위원장 조벽암, 박노갑, 허준 등이었다(『백제』, 1947.2, 조남현, 위의 책, 31쪽에서 재인용). 이 중 김기림, 조벽암 정도만 박화성과의 친교가 확인된다. 김기림은 박화성의 수필을 대학 교재에 신고자 했고, 해방 후 “창작집을 서두르라는 조벽암의 권고”가 있었다고 한다(『눈보라의 운하』, 318; 312쪽).
- 42 서정자(2021), 앞의 글, 370-371쪽 참조.

도적인 거리두기로 해석할 수도 있다. 권영민에 따르면 당시의 진보적인 리얼리즘은 이데올로기의 소설적 실천으로 계급적 투쟁과 실천이 가장 중시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⁴³ 일제 강점기 카프 문학과 동일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박화성은 오빠 박제민이 사상운동으로 인한 수감 생활 후 맞게 된 개인적인 비극을 보면서 체제에 협력하지 않는 사상운동의 험로를 목격하였다. 작가는 스스로는 일본어로 창작하지 않고자 한 문학적 신념을 견지했기에 사상전향자가 다시 건국운동의 최전선에 서고 이데올로기에 우선순위를 둔 문학이 재등장하는 것을 보며 그와 거리를 둔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사상에 우위를 둔 당시 좌익문단의 기치와, 사상에서 전향하지 않으면서도 지역의 문인 후배들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였던 박화성의 실천 사이에 놓인 거리를 통해 박화성의 해방기 활동의 의의를 새롭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해방 후 적극적으로 사상이나 문학 활동에 나서지 않던 박화성이 좌익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어 사상운동과 문단 활동이 모두 위축되었던⁴⁴ 1947년에 조선문학가동맹의 목포지부장을 맡았다는 사실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해방기 박화성의 활동을 좀 더 면밀히 넓은 맥락에서 검토해볼 때, 박화성과 오랜 인연을 이어왔던 조운⁴⁵의 행적을 조선문학가동맹 목포지부장이라는 박화성의 경력과 연관시켜 볼 수 있다. 1946년 11월, 조운은 광주전남의 대표로 조선문학가

43 우리 문화예술가가 민주주의 조선의 탄생과 육성이라는 위대한 역사시대에 처해서 무엇을 들고 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공통인 것이며, 이것이 토대가 되어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창작이론인 혁명적 로맨티시즘을 자체 내의 커다란 계기로 하는 진보적 리얼리즘의 제시가 그 의의를 완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남천, 「새로운 창작방법에 관하여」, 조선문학가동맹 편, 『건설기의 조선문학』, 1946, 164~165쪽, 권영민, 앞의 책, 86쪽 재인용 및 참조.

44 조남현의 저서에서는 1948년의 문단 상황에 대해 엄홍섭, 이근영, 허준 등이 좌파 진영을 지켰고 1949년에는 김만선이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좌익작가들의 퇴조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논의하였다. 조남현, 앞의 책, 27-28쪽 참고.

45 조운이 이광수에게 소개하여 박화성의 「추석전야」가 발표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박화성이 영광에서 교원생활을 할 때 동료로 만났으며 박화성은 ‘소영(素影)’이라는 아호를 그에게서 받았다고 한다. 박화성, 「나의 교유록 원로여류가 엮는 회고 1 흰빛의 상징자」, 『동아일보』, 1981.1.5.

동맹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고⁴⁶ 1947년 3월까지 조선문학가동맹 활동이 확인된다.⁴⁷ 그러므로 이 때 조운의 활동이 1947년 2월 박화성의 목포지부장 선출과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 등단 과정에 실질적 도움을 준 조운과의 관계가 이 시기까지 지속되었고 서로의 활동에 대한 공감감이 있었을 수 있지만 조운의 월북으로 인해 이후 그와의 관계에 대한 회고에서 이 시기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48년 조운이 제주 4·3을 다룬 시를 창작하고 발표하였다는 점은⁴⁸ 마찬가지로 4·3을 소설화하였으나 발표하지 못하고 소실된⁴⁹ 박화성의 소설 「활화산」 창작이 1949년 무렵으로 추정된다는 점을⁵⁰ 떠오르게 한다. 조운은 1948년 8월에 월북하였는데, 단독정부 수립 직후인 이 시기는 해방기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이봉범은 단정 수립으로 냉전반공체제가 구축되고 월북 및 월남에 의해 문화인들이 이합집산했으며, ‘국민보도연맹’이 창설되어 (1949.4.21.) 전향을 강제하고 반공주의가 지배이데올로기가 되었고 위로부터

46 제4회 중앙집행위원회의 보선으로 소설부 위원으로는 박태원, 허준, 채만식, 엄홍섭의 이름이 확인된다. 『자유신문』, 1946.4.15.

47 조운은 1947년 3월 조선문학가동맹 연간시집에 시조를 수록하고 『문학』에 「탈출」을 발표하였다. 이승철, 「광주의 문학정신과 그 뿌리를 찾아서 1-한국 근현대문학을 개척한 광주의 선각자들을 중심으로」, 『문학들』 No.33, 심미안, 2013, 97쪽 참조.

48 1948년 『문장』 10월호에 제주 4·3 항쟁을 최초로 다룬 시조 「유자」(창작 시기는 1948년 6월 17일)를 남쪽 문예지면에 마지막으로 발표하였다. 위의 글, 97쪽 참조.

49 『눈보라의 운하』(368~369면)에 따르면 1950년대 중반, 천득근이 박화성이 보관하고 있던 작품들을 불태웠다는 내용이 나온다. “제주 폭동 사건을 소재로 한 「활화산」이라는 70장의 단편을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곳에 발표하려고 아꼈던 원고와, 각 잡지며 신문에서 도리고 오려서 모아둔 책장과 신문종이”가 사라졌고 「진달래처럼」, 「봄 안개」, 「검은 사포」, 「파라솔」, 「광풍 속에서」, 「파랑새」, 「거리의 교훈」, 「형과 아우」, 「외투」도 포함되어 있었다. 상당수가 현재까지 미확인된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으나 해방기부터 한국전쟁을 거치며 여러 사건과 상황을 거친 천득근의 입장에서 4·3을 다룬 작품을 묵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50 이동운의 논문에서는 최일수의 글에서 작품의 창작 연도가 1949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최일수, 「의지의 미학-박화성의 작품 세계」, 『한국현대문학전집 4』, 삼성출판사, 1985, 402면), 증거가 없어서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동운, 「역사의 광풍과 진실의 동면-박화성의 「휴화산」론」, 『영주어문』 제2집, 영주어문학회, 2000, 148쪽 참조.

(반공)국민 만들기와 검열제도의 본격적인 작동 등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⁵¹ 이 시기는 공보처 주관으로 남포당을 위시한 133개 정당·단체의 등록이 취소(1949.10.18.)되면서 조선문학가동맹도 등록이 취소된 엄혹한 때였다.⁵²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반공법이 만들어지고 보도연맹이 만들어진 때에 4·3을 다룬 소설을 창작한 박화성의 작가의식일 것이지만⁵³ 안타깝게도 작품이 발표되지 못하고 소실되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박화성과 조운의 이 시기 교류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조선문학가동맹의 중심부에서 활동한 조운과 지역에 근거를 두었던 박화성의 차이를 확인할 수는 있다. 또한 조운이 전향 후 월북한 것처럼, 조선문학가동맹의 집행위원으로 보선되었던 염상섭, 홍효민, 조직부원 박영준, 선전부장 김용호 등이 보도연맹 가입자가 되었고⁵⁴ 조선문학가동맹에 단순 가담한 사람들도 보도연맹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목포지부장을 역임했던 박화성의 보도연맹 가입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은 의외로 보인다.

자서전에서 목포지부장 경력을 밝혔던 작가는 ‘전향’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박화성은 당시 문필가들의 전향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고⁵⁵ 이봉범의 논의

51 이봉범, 「근대지식으로서의 사회주의와 그 문화, 문화적 표상: 단정수립 후 전향의 문화사적 연구」, 『대동문화연구』 제64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217쪽 참조.

52 1949년 9월 “문맹 시위원장 등 18명 지검에 송청”되었다는 기사도 확인되지만 명단은 확인되지 않는다. 「문맹 시위원장 등 18명 지검에 송청」, 『자유신문』, 1949.9.28.

53 서정자는 이 작품을 쓰고 발표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도 당시 박화성의 역사의식이 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서정자, 「박화성의 「혈어진 청년회관」론 오빠-누이의 구조와 항일민족의식」, 『문명연지』 제5권 제3호, 한국문명학회, 2004, 58쪽 참고. 박화성은 1973년 발표한 「어머니여 말하라」(후에 ‘휴화산’으로 개제)에서 4·3 피해자 가족의 후일담을 다루고 있다.

54 조남현, 앞의 책, 31쪽.

55 「악몽에서 광명의 길 찾아 시내만 만여 명 자수 國議員·문필가 전향 이채, 1개월간 성과 多大」, 『자유신문』, 1949.12.2. 이 시기 언론에서는 문인 중 처음으로 보도연맹에 가입한 인물로 ‘정지용’이 소개된다. 정지용은 박화성의 딸이 다녔던 이화여자대학의 교수로 박화성과 인연을 맺었고 1948년 1월 결혼식 주례를 위해 목포에 왔을 때 교원들과 문학 청년들이 모여 만찬회를 열었다고 한다(『눈보라의 운하』, 322쪽 참고).

에서 제시한 단독정부 수립 후 전향 문화인의 명단이나⁵⁶ 그보다 넓은 범위인 1945~1950년 문화인의 전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조은정의 박사 논문⁵⁷에서도 박화성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전쟁 발발 후 인공 치하 서울에서 가족을 지키고 귀향을 위한 증명서를 얻기 위해 박화성이 조선문학가동맹에 다시 참여했다는 점을 회고하는 부분에서도⁵⁸ 만약 그가 전쟁 전 보도연맹에 가입했거나 전향의 과정을 거쳤다면 이에 대한 탄압과 핍박이 있었을 것이나 그런 점이 드러나지 않는다.⁵⁹ 차범석은 박화성이 조선문학가동맹 목포지부장 경력과 한국전쟁 중 궤기대회에서 궤기문을 낭독한 전력으로, 1955년 한국일보 장기영 사장이 신분을 보장하여 『고개를 넘으면』을 연재하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⁶⁰ 전시에 궤기문을 낭독한 경력이 있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해방기와 전후에 박화성이 보도연맹이나 전향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점은 의아할 정도이다.

1950년 11월 현재 검거된 전국의 부역 혐의자 총수가 5만 5909명에 달했고⁶¹ 합수부의 부역자 심사 처리 기준이 한국전쟁 ‘전’의 좌익 전력 여부와 생명보존을 위한 불가피성, 대한민국에 충성하고 협조한 실적 등이었다는 점⁶²을 참고할 때 박화성의 해방기와 인공 치하에서의 이력이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았던

56 이 논의에서는 국민보도연맹 조직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지방의 좌익문화단체와 관련한 활동으로 전향할 수밖에 없었던 예로 김정한과 더불어 조운을 들고 있다. 이봉범(2008), 앞의 글, 225-226쪽 참조.

57 조은정, 앞의 글 참조.

58 『눈보라의 운하』, 278-281쪽 참고.

59 다만 많은 모략과 위협이 있었다는 점이 서술되어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당원’이 아니었다는 점이 강조된다. 『눈보라의 운하』, 280-281쪽 참고.

60 2004년 4월 16일 ‘박화성 탄생 백주년 기념 행사’에서 차범석이 회고한 내용을 서정자의 논문에서 인용하였다. 서정자(2004), 앞의 글, 52쪽 참고.

61 「5만5천여 명 전국 부역자 검거수」, 『동아일보』, 1950.11.16; 「도시별 부역자 수」, 『조선일보』, 1950.11.17, 김윤경, 「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 군법회의의 문제점 - 노천명·조경희·이인수의 판결을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57호,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271쪽 재인용. 조선문학가동맹에 가담한 것을 이유로 노천명과 조경희가 처벌을 받았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62 김윤경, 앞의 글, 271-272쪽 참조.

보다 명확한 이유가 궁극하지만 현재까지는 규명할 수 없었다.⁶³ 서울 수복 후 이른바 ‘잔류파’ 문인들이 참회와 해명이라는 폭력적 상황에 직면했던 상황을 떠올릴 때도 역시나 박화성의 위치는 특수하다고 하겠다. 단독정부 수립 이후 강제된 전향은 국민국가 건설을 위해 국가가 폭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하여 스스로를 정당화한 것으로 이러한 전향에 참여한 것은 ‘국민 되기’ 프로젝트에 가담한 것이기도 하다.⁶⁴ 그렇기 때문에 좌파는 물론이고 중간과 문인이나 애초에 좌우 어떤 조직과도 직접 연계를 갖지 않았던 자유주의자들도 전향을 할 수밖에 없었고, 좌익 진영의 지방 조직에 참여했던 문화인들을 포함하여 과거에 좌익 관련 단체에 이름을 올렸다면 국민보도연맹에 의무적으로 가입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조선문학가동맹 ‘부산지부’ 위원장 김정한과 문학가동맹에 가입했으나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던 손소희가 그 예로 제시된다.⁶⁵ 그런데 박화성에게 단독정부 수립 이후 전향에 대한 압력조차 가해지지 않았다면 이는 그가 ‘국민’으로 호명될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소외와 배제의 의미일 수도 있다. 목포라는 지역의 여성 문인이면서 이미 기성세대인 박화성은 새로운 민족국가를 건설하거나 새로운 민족문학을 수립해 나갈 주역으로 호명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해방기에 박화성은 전향하지 않았으나 사실은 전향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것일지 모른다.

이와 관련하여 『눈보라의 운하』에는 서울 수복 후 CIC⁶⁶에서 9일 간 조사를

63 『문예』 전시관에 수록된 「문단은 다시 움직인다」 코너에 인공 치하 문인들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박화성의 이름은 없다(「문단은 다시 움직인다」, 『문예』, 1950.12). 이는 전전(戰前)에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문단이 전시에 부산을 중심으로 이어졌던 데서 박화성에 대한 소외와 무관심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64 손혜민, 「단정 수립 이후 ‘전향’과 문학자의 주체구성-박영준의 해방기 작품을 중심으로」, 『사이』 제11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1, 184쪽 참조.

65 이봉범(2008), 앞의 글, 220쪽; 230쪽; 234쪽 참조.

66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계엄사령부에 소속되어 활동하던 서울 수복 후 ‘경인지구 방첩대’(부대장 김창룡)를 발족시키고 적극적인 ‘부역자’ 색출작전에 나섰다. 전쟁 직후 피난길과 후방에서 벌어졌던 보도연맹, 형무소 재소자 학살이 서울 수복 이후 부역자 처벌로 다시 벌어졌던 것이다. 수복 뒤에 대대적으로 진행된 부역자 처벌은 보도연맹원, 형무소재소자 학살의 연장선에 있었다. 김득중, 「한국전쟁 전후 육군 방첩대(CIC)의 조직과 활동」, 『사림』 36호, 수선사학회, 2010, 49면.

받으며 수감되었다는 사실이 서술되어 있는데 미결수로 있으면서도 청년 간수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큰 문제없이 나올 수 있었다는 회고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거기(CIC, 인용자)의 간수들은 거의가 대학이나 고등학교의 재학 청년들이라 나인 것을 알고 대우가 극진했다.

『선생님……』

미결수에게 선생님이란 호칭이 가당할까마는 그들은 거침없이 크게 불렀다. (….) 대학생층의 간수들은 (….) 정신적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준 문화인이나, 그들의 지식에 다소 영양을 보태 주었던 나 같은 사람들을 보다 존경하고 따르게 되는 까닭이 아닐까?

『선생님이 지으신 책들이나 쓰신 글을 읽으면서 선생님을 동경했는데 이렇게 이런 데서 뵈을 줄은 참 몰랐습니다.』(350-351쪽)

박화성은 수감 당시 ‘대장’이 후일 민의원 당선자인 ‘윤형남’이었다고 기록하였다. 『동아일보』 기사(1954.5.22.)를 통해 순천 민의원 당선자 윤형남이 확인되는데, 박화성 수감 당시 CIC 관련자들이 호남(이나 목포) 출신이었다면 당시 지역 청년들에게 존경 받았던 박화성의 입지가⁶⁷ 그에 대한 처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박화성의 일제 강점기 창작과 발표가 1930년대 중반에 끊겼다는 점에서 전시 CIC의 간수들이 읽고 감화를 받았다고 한 박화성의 글은 해방 후 간행된 『고향없는 사람들』과 『홍수전후』였을 가능성이 크다. 『눈보라의 운하』가 발표된 1960년대 상황을 고려하면 CIC의 조사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박화성은 “여러 가지로 직접 문초할 때 나는 헌병대에서와 다름이 없이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과거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설파하고, 그것으로 죄목이 성립한다면 무슨 값음이라도 받겠노라고”(352쪽)서

67 박화성이 영광중학원 교사로 재직할 때 창작한 가사 「그네」는 해방 후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렸고 거리에서 박화성을 만난 당시 학생들은 존경심을 표하며 「그네」를 소리 높여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 천승준, 「유족인사」, 『제16회 소영 박화성 문학페스티벌 자료집』, 2022, 6쪽 참조.

술하면서 그 자세가 오늘까지 변함없다고 강조한다. 물론 자신의 삶에 대해 객관적이기 어려운 ‘자서전’이라는 장르와 과거의 이력에 대해 가감없이 진술할 수 없었던 1960년대라는 시대를 감안해야 하지만⁶⁸ 사회주의 운동가였던 오빠 박제민이나 자신과 남편을 둘러싼 여러 문제적인 이력과 활동에 대해서 작가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맥락을 고려하면서 목포라는 지역에 주목하면 해방기 박화성의 활동과 그의 문학에 대해 새로운 방향에서 고찰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해방기에 유일하게 확인되는 활동 이력인 ‘조선문학가동맹 목포지부장’과 관련하여 “고향의 선배라는 의미에서 절로 지부장에 뽑히게 되었”다는 회고와 CIC에서 청년 간수들에게 ‘선생님’으로서 존경받았다는 사실을 단서로 하여 박화성과 지역 문인들과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박화성 해방기 문학 활동의 의미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3 서울 문인과의 교류와 목포 문인 네트워크

1940년 채만식은 “湖南産의 문인이 많지를 못 합니다. 詩人으로 曹雲, 辛夕汀, 徐廷柱 외에 몇 분이 있을 뿐 小說家로는 朴花城여사 한 분과 不肖 本人”⁶⁹이라고 말했다. 이 시기 박화성은 창작 활동을 멈추고 목포에서 지내고 있던 시기였다. “朴花城氏. 夫君과 함께 上京하셨다가 다시 木浦로 내려가셨다는데 벌써 애기가 셋이 있드라고”⁷⁰라는 기사에서도 그러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박화성의 활동이 주요 매체와 인사들에게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첫 창작집 『고향없는 사람들』이

68 김국진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김승산은 한국 전쟁 전시에 실종되었으며 이 사실이 『눈보라의 운하』에도 서술되어 있다. 손자 천경훈(천승걸의 아들)은 김승산에 대한 부분이 이 책에서 소략한 것이 시대 상황 때문이었을 것으로 언급하며 할머니가 “인공 치하에서는 자본가 집안이라는 이유로, 수복 후에는 부역을 했다는 혐의로 곤욕을 치르셨다”는 점을 언급했다. 천경훈, 「할머니의 추억」, 서정자, 야마다 요시코, 송명희 편, 앞의 책, 473-474면 참조.

69 「『叢湖』出身 文士の『郷土 文化』를 말하는 座談會」, 『삼천리』, 1940.6.

70 「文士 諸氏와 女性 諸氏의 近況」, 『삼천리』, 1940.10.

간행된 이후이다. 박화성은 일제 강점기에 검열로 훼손된 작품을 출간할 수 없어 창작집을 간행을 포기한 바 있고 『고향없는 사람들』 수록작품은 모두 일제 강점기에 창작된 것이다.⁷¹ 작가는 수필 「나의 교유록」에서 이은상과의 관계로 호남신문에서 첫 단편집을 발간했다고 회고하였는데⁷² 광주 호남신문사에서 조판인쇄하고 서울 중앙문화보급소에서 발행되었다.⁷³ 1948년 『자유신문』과 『경향신문』에 신간 기사가 실렸으나,⁷⁴ 1947년 연말 목포에서 먼저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이는 1947년 국취관이라는 요정에서 박화성여사의 단편집 『고향없는 사람들』 출판기념회가 열렸다는 차범석의 회고로 뒷받침된다.⁷⁵

그런데 창작집이 간행된 무렵의 행적을 보면 바로 전 해 조선문학가동맹 목포지부장이었다는 점이 무색하게 민족주의 진영의 문인들과의 교류가 확인된다. 박화성은 서울을 방문하여 정비석, 백철, 김동리, 최정희, 김송 등 문인들과

71 「두 승객과 가방」, 「불가사리」, 「눈갈 때」, 「신혼여행」, 「시들은 월계화」, 「눈오던 밤」, 「고향없는 사람들」, 「한귀」 8편이 수록되었다. 박화성, 『눈보라의 운하』, 앞의 책, 322쪽. 창작집 『고향없는 사람들』의 ‘自序’(1947.12.15.)에서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한성도서에 게시는 엄홍섭씨가 또 말씀을 하시어 작품 전부의 검열을 마치고 출판허가까지 내어 착수하려는 것을 삭제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탓을 붙여 사람을 두 번이나 보내어 기어코 찾아 오고 말았다. 참말이지 「하수도 공사」 같은 것은 거의 삼분의 이가 삭제되었기에 이 따위로 활자화해서는 읽히는 본의가 어디있으랴 싶어 굳이 거절해 버린 것이다.

박화성, 『박화성 단편집 고향없는 사람들』, 푸른사상, 2008, 5쪽.

72 노산은 「신가정」을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한 다음 조선일보사로 갔었고 그곳에서도 큰 업적을 남긴 후 해방이 되면서 광주로 내려가 호남일보사의 초대 사장이 되었었다. 일제시대에는 검열에 걸려 단편집도 못내던 나는 그 신문사의 덕분으로 첫 단편집 「고향없는 사람들」을 갖게 되어 노산을 여러가지의 의미에서 늘 고맙게 생각하며 그의 건강을 맘속으로 빌고 있다. 「나의 교유록 원로여류가 엮는 회고 28 첫 장편 「백화」 탈고」, 『동아일보』, 1981.2.10.

73 이 부분은 서정자 교수가 단행본을 확인하여 저작 검 발행자가 박화성의 이름으로 되어있고 주소가 목포시 용당리 986번지로 되어있다는 점과 더불어 알려주셨다. 이 지면을 빌어 감사를 표한다.

74 「신간」, 『자유신문』, 1948.2.15; 「신간」, 『경향신문』, 1948.3.7.

75 차범석, 「뿌리가 있어야 열매가 맺는다-목포문학의 뿌리를 찾아서」, 목포 100년의 문학 발간추진위원회 편, 『목포100년의 문학』, 을미, 1997, 10쪽.

만났고, 두 번째 창작집 『홍수전후』에 대해 정비석이 고평했던 것도 이들의 관계가 진영과 상관없이 우호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비석은 “박화성씨의 창작집 「홍수전후」를 통독하고 수록된 아홉편이 한결같이 주옥같은 작품들임에 놀랐다”, “「하수도공사」 「온천장의 봄」 「호박」 「춘소」 같은 극히 짧은 소품에도 씨의 노련한 문학적 광채가 유감없이 발휘되어 있”⁷⁶다고 평하였다. 『홍수전후』의 작품들도 일제 강점기에 창작, 발표된 작품들이었는데⁷⁷ “문단적으로 물의가 높았”다는 표현이 작품의 수준과 관련된 것인지 사상적 경향과 관련된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이후 문학사에서 동반자적인 경향의 작품으로 평가되었던 작품들에 대해 정비석이 고평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뜨인다.

더구나 『홍수전후』를 발간한 ‘백양당’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48년 연말 필기대회에서 “출판업 백양당, 아문각 등은 소위 인공 지하운동의 총량이며, 심장적 기관”으로 공격당했다. 백양당과 아문각에서 출판된 도서는 조선문학가동맹 기관지인 『문학』에 광고되는 경우가 많았고,⁷⁸ 1947년 백양당에서 간행된 임화의 시집 『찬가』가 발매 금지되어 큰 반발이 있었다. 당시 사상과 문단에서의 좌우익의 대립은 주지하는 사실이지만 1949년 ‘한국문학가협회’ 결성식에서 준비위원장 박종화가 “일제시대엔 그렇지 않던 문학인들이 팔일오이후 길에서 만나도 외면을 하고 지내게 되었던 것은 우리의 슬픈 현실이었”⁷⁹다고 한 대목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 이봉범의 연구에서도 1946년 4월 ‘청년문학가협회’ 결성, 1947년 2월 ‘문충’ 결성된 후 신탁통치파동을 계기로 하여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강화되면서 문학운동에서도 분극화 현상이 확대되었다고 설명하였다.⁸⁰ 물론 박

76 정비석, 「박화성저 「홍수전후」, 『경향신문』, 1948.3.18.

77 「하수도공사」, 「온천장의 봄」, 「중국어날」, 「홍수전후」, 「호박」, 「이발사」, 「혈어진 청년회관」, 「춘소」, 「비탈」이 수록되었다. 박화성, 『눈보라의 운하』, 앞의 책, 326쪽 참고.

78 박용찬, 「해방직후 조선문학가동맹의 매체투쟁과 미디어 전략」, 『국어교육연구』 제53집, 국어교육학회, 2013, 400쪽 참고.

79 「문충회관에서 거행 민족문화의 개화위해 한국문학가협회를 결성」, 『동아일보』, 1949.12.18.

80 이봉범(2008), 앞의 글, 229쪽 참조.

화성 작품에 대한 정비석의 고평은 정부수립 이후 급격하게 악화된 시기보다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당시 문단과 사회적 정세에 대해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러한 정비석과의 교류⁸¹가 시작된 것은 1947년 무렵이며 박화성과 서울 문인들과의 관계를 참고하기 위해 해당 부분을 좀 길지만 인용하도록 하겠다.

1947년 6월 7일 이른 아침인데 「신가정」 기자이며 화가인 최승수씨의 전화가 왔다.

“저희들 지금 흑산도에 갔다가 오는 길인데요. 꼭 박선생님 만나고 싶군요. 어떻게 하면 뵈을까요. 백철씨하고 전화 바꿉니다.”

백철씨도 귀에 익은 음성으로 나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여서 점심대 접을 하겠으니 일행이 다 오시도록 하라는 대답을 하였다. 최씨와 백씨는 숙면이지만 모르는 분들도 만나면 구면이거니 하고 초청하였던 것이다.

일행중에는 특이한 여운으로 고운 시를 쓰는 김억 안서씨, 소설가 정비석씨, 김송 씨 등이 있어서 초면이건만 진정으로 반가웠다. 음식은 변변치 않지만 정원에 만개한 갖가지 화초들이 빛을 더 내어 그들을 환영

81 박화성과 정비석의 우호적인 관계는 1955년 장편 『고개를 넘으면』의 연재 결정 과정에서도 다시 확인된다.

1952년 이래 나는 한달에 한두번쯤 와서 2, 3일씩만 있다가 귀향하던 서울 체제를 1955년 가을부터는 눌러있기를 곤잘하게 되었다. 한국일보 창간때부터 한국일보사에서 소설연재를 김철씨를 통하여 청탁해왔지만 내가 고사하여서 염상섭씨가 첫번째로 「미망인」을 집필하였는데도, 그 신문사에서는 시골집에 있는 나에게 당시의 명사들을 보내어 차기 차기하고 요구를 거듭하였다. 나는 또 고집하여서 정비석씨가 두번째로 「민주어족」을 연재하는 도중에 서울에 오니까 아이들이 한국일보사에서 사람이 여러 번 왔다 갔으니 꼭 가보라는 재촉을 하였다. (...) [사장 장기영이 당시 연재중이던 정비석의 「민주어족」 다음의 집필을 강력히 주장했다. 총무인 김철씨도 동석인 정씨(정비석)도 맛장구를 쳤음은 물론이었다. 그때가 이른 봄인데 「민주어족」이 끝나는데로 연재하겠다는 언약을 하고 고향에 돌아온 나는 구체적인 구상에 혼신의 정신을 기울였다.

박화성, 「나의 교류록 36 소설 고개를 넘으면」, 『동아일보』, 1981.2.21.

하는 듯 그들은 음식과 정원 풍경을 함께 즐겼는데 이 집의 주인인 애들 아빠도 공학자답지 않은 풍류인이라서 말과 감정이 서로 통하는 까닭에 더욱 화려했으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들을 역에까지 나가 전송했는데 다음에 정비석씨에게서 「과도」라는 단편집과 간곡한 사례의 편지가 와서 나는 단편집을 읽으며 그 유창한 문장과 풍부한 어휘에 감탄하였다. 그후로부터 나는 서울에 가면 반드시 백철씨와 정비석씨를 만나 문단소식이나 문인들의 동향을 듣고 점심이나 만찬을 나누기도 하여 서서히 교우지간이 되어갔던 것이다.

나는 「갈채」 다방에서 흔히 손소희씨를 만났다. 지면(知面)이라고는 그때에 박경리, 한말숙, 손소희밖에 없어서 모처럼 갔다가도 어쩌다가 그 세 사람이 안 보이면 쓸쓸하여 도로 나오곤 하였는데 한번인 시인 김구용씨가 자청하여 나를 불러 자기소개를 하며 앉기를 권하였다. 태도가 부드럽고 겸손하여 함께 차를 마셔도 마음이 편안했다. 그는 불쑥 말했다.

“선생님은 왜 진작 올라오시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시골에 계셨기 때문에 참 손해가 많아요.”

“어느 면에서 그리도 손해가 많나요.”

“모든 면에서죠. 모든 출발이 교우관계서부터인데 보세요. 어디 선생님과 친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해가 여간 많으신 게 아닙니다. 참 애석해요.”

진지하게 한탄조로 말하던 김구용씨를 내가 그런 손실을 당할 때마다 연상하면서 어디서 만나거나 반갑고 정다와서 악수의 손길이 더욱 힘차게 맺어지는데 이런 불리한 조건을 가졌으면서도 나는 많은 문우들과 참다운 우정을 펴갔다. (밑줄 강조, 인용자)⁸²

인용에서 거론된 문인들은 해방 후 『백민』의 발간을 주도하던 김송을 포함하여

82 박화성, 「나의 교유록 37 갈채 다방과 문우」, 『동아일보』, 1981.2.23.

대부분 민족주의 진영의 문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눈보라의 운하』에서 거명한 백철, 김동리, 최정희를 더하면 그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해진다.⁸³ 이를 통해 이광수의 등단작 추천으로 시작된 민족주의 진영 문인들과의 교류가 해방 후에도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용에서 다음으로 주목할 부분은 박화성이 시골에 있어서 손해가 많다는 김구용의 한탄이다. 이는 1936년 김기진이 인터뷰에서 “마음 맞는 동무와 문인들도 많이 잇”는 서울로 올라오고 싶지 않느냐고 묻는 대목⁸⁴과도 겹쳐 읽을 수 있다. 한국전쟁 후 서울로 생활의 중심을 옮긴 후에야 적극적으로 문단 활동에 임할 수 있었던⁸⁵ 박화성은 ‘문단과의 거리’, ‘시골에서의 문학수업’, ‘문우들과의 격리’라는 세 조건이 자신의 문단 생활에 지장을 가져왔고⁸⁶ 지역문인으로서 ‘불리한 조건’과 ‘손실’⁸⁷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일제 강점기에도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지역 문인이었던 박화성은 서울 문인들이 주도하였던 문단의 중심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으나, 지역 문인으로서 목포의 문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작품 창작의 공백기를 메울 수 있었다는 점은 새롭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1930년대 박화성은 목포를 기반으로 활동하면

83 물론 이러한 논의의 근거가 되는 『눈보라의 운하』와 ‘나의 교유록’ 시리즈가 발표된 1960년대, 1980년대라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야 함은 분명하다. 사상적인 경향이 강하거나 월북 등의 이유로 교류 관계에 대해 말을 아껴야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정자의 논문에서도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까지 사상 전력으로 인해 작품 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박화성이 반공이 국시 제일의이던 60년대에 쓴 자서전에 모든 것을 쓸 수 없었다는 점이 감안되어야 함을 논의한 바 있다. 서정자(2004), 앞의 글, 42쪽 참조.

84 김팔봉, 앞의 글.

85 박화성이 서울로 옮긴 후 교류하였던 문인과 다양한 인사들에 대한 내용은 서정자, 「1963년의 소영 박화성 선생-소설 짓기, 집짓기」, 『서정시학』 Vol.32 No.3, 계간 서정시학, 2022, 182쪽 참고.

86 박화성, 『눈보라의 운하』, 363쪽.

87 「조선문단」 시절부터 귀에 젖도록 들어보고 눈이 진무르도록 많이 읽어보던 그 월탄을 나는 1953년에야 서울 어느 모임에서 실제 인물과 만날 수 있었다면 아무나가 언뜻 곱이 듣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시골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은 문단생활에 큰 마이너스를 보태고 있었을 뿐이었던 것이다.

박화성, 「나의 교유록 34 춘원과 월탄」, 『동아일보』, 1981.2.18.

서 지역 문인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였고 그의 집 사랑방 ‘세한루’는 이후 목포 문인들의 중요한 근거지가 되었다. 지역 문인들에 대한 박화성의 태도는 1981년에 연재한 「나의 교유록」 마지막 회를 “한가지의 큰 소망은 서울에 산재한 내고장 출신 문인들의 대회합이다. 그리고 박순범 최연중 김재희 김일로 최일환 씨 등 목포 문인들의 건투를 빈다”라고 마무리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다.

이러한 지역 문인과의 네트워크가 창작이 어려웠던 일제 강점기 후반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회고는 1960년대 연재된 『눈보라의 운하』와 1980년대 연재된 ‘나의 교유록’에 모두 등장하지만 거명되는 인물에 차이가 있어 두 텍스트와 당시 목포 문인에 대한 선행 연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눈보라의 운하』의 해당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일천구백사십년이 되자 일본정치는 극도의 포악성을 띠어 창씨개명을 강요하고 글도 일어로 쓰라는 명령을 내렸다. (...) 일어로 소설이나 수필을 쓰다니 그런 망발이 없다고 생각한 나는 가정적으로 대단히 번잡한 시기니까 단연코 당분간 붓대를 꺾으리라고 작성했다.

그러나 후배는 양성해야 되겠기에 학생 중에서 문예에 뜻을 가진 사람이나 몇 사람의 당지 출신 문학청년들을 자주 만나면서 약간의 지도를 했다.

저 유명한 <목포의 눈물>의 노래를 지은 문이석군은 꽤 영롱한 시를 쓰더니 요사했고, 그 외의 사오인의 문학도가 시, 소설, 수필을 공부하다가 병들어 죽기도 하고 행방이 묘연해지기도 했으나, 대개는 후일의 대성은 없을망정 그때는 다 꾸준히 글의 수련을 쌓고 있었다. (263-264쪽)

이를 통해 1940년이라는 시기적 배경과 ‘후배 양성’이라는 뚜렷한 목적에서 문이석을 비롯한 목포의 문학도들과 교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81년 연재된 ‘나의 교유록’에는 “나는 용감히 붓대를 놓고 고향에 돌아가 내 고장에 살면서 문학을 사랑하는 청년애호가들을 만나보았(밑줄 강조, 인용자)”다고 하면서 “소설을 쓰려는 오성덕, 정철, 시를 쓰려는 심인섭, 정기영 등이 가끔씩 그들의 글을 가

지고 와서 나의 지도를 받기도 하였”다는 점에 이어 이동주와의 만남을 상세히 회고하여 문학적으로 교류했던 사람들의 면면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으며 1940년보다 앞선 시기에 이러한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일제 말 박화성은 문학 창작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일본어로 창작하지 않기 위해 절필했지만 지역의 문인들을 지도하고 그들과 교류하면서 문학 활동을 이어간 것이다. 이는 해당 시기가 박화성 문학의 공백기가 아니라는 점뿐만 아니라 목포 문학사에서조차 공백기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이들의 모임은 해방 후에도 이어지며 박화성의 해방 후 창작 재개와 해방기 목포 문학의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박화성 문학과 목포 문학사라는 양 측면에서 모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화성은 해방 후에 “「문학동우회」라는 명칭으로 한달에 한번씩 내집에 모여서 작품도 발표하고 작품(현역문인들의)에 대한 독후감 비슷한 단평”도 하였으며 “향도여중 교장이던 수필가 조희관, 시를 쓰는 심인섭, 박정운, 전승묵, 정기영과 소설을 쓰는 박상권, 정철, 백두성, 이가형, 평론을 쓰는 장병준, 차재석, 희곡에 박경창 등등 10여 명의 문학인들이 합평과 친목으로 값진 시간을 보냈”⁸⁸ 다 라고 서술하였고 『눈보라의 운하』에서는 시인 이동주를 포함하여 근 이십 여 명의 회원이 함께 했다고 회고하였다.⁸⁹ 그러므로 ‘고향의 선배’를 문학가동맹 지부장으로 추대한 것은 이 목포의 문인들이었을 것이다. 또한 해방 후에야 이루어진 첫 창작집 출간의 기쁨을 작가는 이들과 나누었을 것이다.⁹⁰ 박화성 본인도 문학애호인들이 주선해 준 『고향없는 사람들』 출판기념회에 대해 “장래의 큰 나무가 될 새싹들을 맘속 깊이 축복하고 또한 격려”⁹¹했다고 회고하였다. 김선태는 『고향없는 사람들』 출판기념회가 목포에서 처음 열린 출판기념회였고 그 계기로

88 박화성, 「나의 교류록 원로 여류가 엮는 회고 33 일어로 번역된 「한귀」」, 『동아일보』, 1981.2.17.

89 정태영은 그 외에 차범석과 목포고 재학생 정규남 등을 더해 회고하였다. 정태영, 『박화성과 이난영 그들의 사랑과 이즘』, 『뉴스투데이』, 2009, 87면, 김선태, 앞의 책, 35쪽 재인용.

90 조희관이 출판기념회를 주선했다고 한다. 김선태, 앞의 책, 39쪽.

91 박화성, 『눈보라의 운하』, 322면.

박화성의 집필실 ‘세한루’가 젊은 문학도를 양성하는 교습소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⁹²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일제 말부터 지속되어 온 문학적 교류로 인해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교류하였던 인물 중 차범석의 동생 차재석에 대해서 박화성은 1942년 박제민의 장례식에서 끝까지 함께 해 주었다는 것을 거론하고 향토문화 예술진흥에 혼신의 힘을 다하며 고향을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향도여중의 초대 교장이었던 조희관⁹³과의 관계는 박화성이 장편 『고개를 넘으면』(1955)와 『벼랑에 피는 꽃』(1957-1958)의 제목 작명을 부탁할 정도로⁹⁴ 신뢰가 높았다. 이러한 차재석과 조희관은 목포문학사에서 목포의 젊은 문학도들을 길러낸 후견인으로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⁹⁵

해방기를 전후하여 목포에서 이루어진 문학적 교류에 대해 두 가지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하나는 이 모임에 좌익쪽의 인물이 많았으나 중도나 우익에 해당되는 인물들도 함께 참여했다는 점이다. 천승준은 “6·25 전까지의 사랑방은 주로 시국과 창작방법론을 둘러싼 이념대결의 토론장”으로 입장이 다른 인물들이 모였고 6·25 이후에는 사상 논쟁보다 목포 문학의 산실로 변화했다고 한다. 아래 인용은 모임에 참여한 인물들을 제시한 것이다.

해방직전과 직후: 심인섭, 오덕, 정철, 이복로, 나천수, 장병준, 백상진,

92 김선태, 앞의 책, 34쪽 참고.

93 박화성의 영광 교원 시절 인연을 맺었던 조희관(1905~1958)은 1947년 향도여중에 부임했고 목포의 교육뿐 아니라 지역 예술문화에 열정적으로 기여하였다. 1948년 무자여순 군인폭동의 여파로 학교를 떠났으나 향도출판사의 사장을 맡아 전시에 정훈 매체 『전우』와 문예지 『갈매기』가 나올 수 있었다(박태일, 「수필가 조희관과 「흑산수첩」, 『근대서지』 제17호, 근대서지학회, 2018, 181-182쪽 참조). 이 출판사에 차재석이 편집책임으로 있었다(이동순, 「지역 문화예술의 들꽃, 조희관의 향기」, 『문학들』 No.32, 심미안, 2013, 120쪽 참조).

94 박화성, 「나의 교유록 34 춘원과 월탄」, 『동아일보』, 1981.2.18.

95 허형만·김선태, 목포문학관 강연자료, 목포문학관 홈페이지.

https://munhak.mokpo.go.kr/munhak/mokpo_literature/flow/modern 검색일, 2023년 2월 21일.

이동주.

1948년 10월~50년 중반: 이동주, 조희관, 박경창, 양수아(화가), 안성현(작곡가), 박기동, 차범석, 최일수, 이가형, 전승묵, 백두성, 박정은, 박상권, 차재석, 김승우.

1950년 중반 이후: 권일송, 조우현, 정규남, 이창렬, 강무창, 박진환, 최일환, 이생연.⁹⁶

이처럼 박화성의 ‘세한루’는 사회주의 사상의 중심이라기보다는 문학과 예술의 네트워크의 장이었다. 그렇기에 이 시기 박화성이 우익문단으로부터 글 청탁이 들어와도 거절하였다고는 하지만⁹⁷ 민족주의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의 문인들과 교류하는 것이 그에게 모순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를 통해 일제 강점기 말부터 해방기에 박화성은 사상활동보다 문학 활동에 주안점을 두었고 그러한 활동이 목포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박화성의 해방기 문학이 목포의 해방기 문학 운동과 상호 교섭하였다는 점을 의의로 들 수 있다. 이는 1945년 해방 후 목포예술문화동맹 문학부에서 발행한 『예술문화』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술문화』 발간에 협조한 지역 유지 명단에 천독근의 이름이 확인되며 오성덕, 장병준, 박경창, 이동주, 조희관, 정철, 심인섭 등 박화성과 모임을 해 온 목포의 문인들이 『예술문화』의 주요 필진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박화성의 문학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읽어낼 수 있다.⁹⁸ 오덕이라고도 불리는 오성덕은 창간호의 편집책임자로 “박화성

96 천승준, 앞의 글, 458-459면 참고. 이 모임을 지켜보며 성장한 장남 천승준을 비롯하여 천승세, 천승걸 3형제를 문학인으로 키워냈다는 점에서도 박화성이 목포 문학을 비롯한 문학사에 미친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97 서정자(2021), 앞의 글, 371쪽 참조.

98 이동순은 문학동우회에서 출판물을 간행하지 못했다는 박화성의 언급에 대해 『예술문화』 발간을 반례로 제시하며 주요 인물인 오성덕, 정철, 심인섭이 사상적인 이유로 한국전쟁 전후에 행방불명되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하였다(이동순, 「문학과 정치 이데올로기의 관계성-작가 오성덕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91집, 중앙어문학회, 2022, 391-392면 참조). 그러나 해방 후 문학동우회에서 『밀물』이라는 동인지도 계획했으나 문인들이 흩어져 실패했다고 회고되었고(정태영, 『박화성과 이난영 그들의 사랑과 이즘』, 『뉴스

여사의 수필을 비롯하여 서광호 상원의 사학과 한글에 관한 논문은 현세대에 있어 일반이 급히 알아야 할 이채있는 讀物”(68쪽)이라는 편집 후기를 남겼다. 2호부터 편집책임 맡은 이동주⁹⁹는 박화성이 『눈보라의 운하』와 ‘나의 교유록’에서 비중있게 소개한 후배 문인으로 『예술문화』에 시 「무궁화 원정」, 「집」, 「눈나린아침」, 「팔려가는여인의 노래」와 평론 「고집」을 수록하였다. 소설 「용」과 평론 「계몽운동과 작가적 임무」를 발표한 정철과 시 5편을 수록한 심인섭이 오덕, 이동주와 더불어 목포예술문화동맹에서 발행된 4인 시집 『네 동무』에 참여했다는 점에서¹⁰⁰ 박화성의 네트워크가 목포 문학사에 미친 영향력을 재확인할 수 있다.

『예술문화』에 대해 상세히 논의한 이동순은 조선문학건설본부 결성과 기관지 『문학』 창간보다 먼저 목포예술문화동맹에서 민중을 지도하고 교육하고 계몽하기 위해 『예술문화』를 발행하여 지역의 문화예술담론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문단사적인 의미를 평가하였다.¹⁰¹ 이처럼 주요 필진의 당시 사상적 경향과 매체의 특징 모두에서 좌익계열의 잡지라고 할 수 있는 『예술문화』에 박화성은 수필 「유달산에 올라」(『예술문화』, 1945.12), 「눈보라」(『예술문화』, 1946.1), 「시풍형

투데이』, 2009, 87면, 김선태, 앞의 책, 34쪽 참고) 『예술문화』는 후배 문인들이 주도한 것이며 박화성은 선배와 후원자의 입장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관련된 인물들과의 교류에 대해 박화성이 반복하여 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매체나 관련된 활동에 대해 박화성이 숨기려고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99 당시 문인들과의 교류를 회고한 「나의 교유록 37 갈채 다방과 문우」에서 그는 “이동주씨를 동반하여” 찾아온 서정주 시인과 1946년에 처음 만났다고 회고한다. 시인 이동주는 해방기에는 사회주의 경향의 문인으로 평가되었다(이동순, 「지역 문학담론의 변모양상 연구-광주·전남 지역의 문예지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67호, 한국비평문학회, 2018, 190쪽). 전통적인 경향의 시를 창작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동주는 1948년 ‘신조사’에서 근무하며 조연현과 관계를 맺고 1950년 『문예』에 서정주 추천으로 등단하였으며 향토적인 순수서정과 한국적 정한의 세계를 그려낸 것으로 평가받는다(이승철, 앞의 글, 106면 참조). 복합적인 문학적 사상을 가졌다는 점에서도 박화성의 문학 활동과 통하는 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0 이동순, 「해방기 문단과 지역의 문학담론 지형-예술문화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60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393쪽 참조.

101 위의 글, 399-400쪽 참조.

계」(『예술문화』, 1946.2)를 연달아 게재하며 창작 활동을 재개하였다. 해방 직후 박화성의 시대인식과 작가의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 작품들은 해방 후 발표된 여성 작가의 첫 작품으로도 의의가 있으며¹⁰² 현재까지 확인된 『예술문화』 4호까지 실린 총 10편의 수필 중 3편을 차지하며 이 매체에서의 박화성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1934년 검열로 실리지 못했던 「헐어진 청년회관」을 『예술문화』 4호(1946.7)에 게재하였다고 하는데¹⁰³ 이는 1948년 간행된 『홍수전후』에 수록되기 전에 발표된 것으로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박화성의 해방 후 첫 활동을 보여주는 『예술문화』 게재 수필을 통해 박화성의 해방기 문학의 초기 면모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해방 후 발표된 첫 작품인 수필 「유달산에 올라」에는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으로 향하”고 “적은 나를 죽여삼천만의 혼을 살”려야 “내나라는 영원한 우리의 것이 될 것”¹⁰⁴이라고 마무리되고 있다. 2호에 실린 「눈보라」에서도 당시의 정세를 정치적, 사상적, 경제적으로 “혼돈할대로 혼돈한 현세”¹⁰⁵로 파악하고 “햇빛처럼 지공무사한 사랑”이어야 삼천만 동포가 모두 고르게 평안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어 3호에 수록된 「시풍형계」에는 앞서 본 것처럼 박제민의 요절에 대한 절통한 마음을 담으면서 ‘사상전향’하였던 자들이 득세한 현실을 비판하는 작가의 목소리가 담겨있다. 이 작품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해방을 맞은 박화성이 당시의 정세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과 기존의 사회주의적 사상에서 전향한 것은 아니지만 삼천만 동포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민족의 독립을 지향함으로써 사상적인 방향이 전이(轉移)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일제 후반부터 해방기에 이르기까지 목포의 지역문인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박화성은 문학 활동을 계속하였는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앙의 시선에서 포착되기 어려운 지역 문인으로 자리하고 있었고, 작품을 창작하여 발표하

102 류진희의 연구에서는 「눈보라」와 「시풍형계」가 논의되었다. 류진희, 앞의 글, 437-438쪽 참조.

103 이동순(2022), 앞의 글, 392면 참조.

104 박화성, 「유달산에 올라」, 『예술문화』, 1945.12., 32쪽.

105 박화성, 「눈보라」, 구명숙 외 편, 『한국여성수필선집 1945-1953』, 역락, 2012, 172-173쪽 참조.

는 것보다 지역 문인들을 후원하고 지도하는 데 치중하였다는 점에서 그 활동이 포착되거나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남편과 자신의 이력으로 인한 복잡한 상황과 중요한 작품이 소실되는 개인적인 악조건이 더해지면서 작가의 치열한 해방기가 공백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목표를 중심으로 한 지역 문인으로서의 박화성의 위치는 민족문학 담론과 사상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간 서울 중심의 좌우익문단과는 다른 지점에서 지역 문학과 개인 문학이 교섭하는 해방기 문학의 일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특히 백철이나 염상섭으로 대표되는 당시의 이른바 ‘중간파’¹⁰⁶가 민족주의 문학에 더 근접해 있던 것과는 달리 사회주의 사상에 기반을 두고 전이되고 있었던 박화성의 작가의식을 고려할 때 그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박화성이 주창한 진정한 민족독립의 길은 로컬리티와 ‘여성’을 포함한 하위주체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더 중요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지역 문인들과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해방기 전후의 박화성의 문학 활동은 당시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나 후속 연구를 기약하며 간략히 언급하고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1930년대 박화성의 사상성이 짙게 드러나는 작품들에서 공통적이었던 ‘오빠-누이(남편-아내)’ 구조는 해방기 소설 작품 「진달래처럼」, 「봄안개」, 「광풍 속에서」에서 반전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은 「광풍 속에서」에 집약되어 있다.¹⁰⁷ 이 작품에는 박화성의 기존 작품에서 두드러지지 않았던 여성 해방에 대한 인식이 부각되어 있고, 첩의 자식이라는 하위주체의 문제, 섬 지역에 대한 소외라는 로컬리티에 대한 의식이 중층적으로

106 권영민은 백철로 대표되는 ‘중간파’가 정치추종의 문학에서 벗어나 문학적 건강성을 회복하자고 주장하였고 이에 계용묵, 이무영, 정비석, 황순원, 박영준 등 호응, 염상섭의 동조로 문단의 중간지대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권영민, 앞의 책, 90쪽 참조.

107 본고에서는 서울신문 연재본을 확인하였는데 창작집 『잔영』(1968) 수록본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결말 부분 서술에 차이가 있고 정현웅의 삽화가 실려 있었다.

당시 『신천지』 편집인이었던 정현웅은 1946년 『신천지』 창간부터 1949년까지 신문소설 삽화에 참여해 왔으나 1949년 8월 전향하며 편집인에서 물러났고 이후 그가 참여한 신문소설 삽화 작업은 박태원, 염상섭, 설정식, 김영수 등 정현웅과 친분이 있거나 전향한 문학인들이었다는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이수나, 「해방기 정현웅의 신문소설 삽화」,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30집,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15, 56-57면 참조).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는 더 이상 사회주의라는 사상을 드러내며 사회 변혁 메시지를 내세울 수 없게 된 당시에 ‘입법위원’이라는 건국의 중심 세력을 비판하는 방향에서 작가의식을 이어나간 것으로 그 의의를 평가할 수 있다.

4 나가며

지금까지 박화성의 문학이 충분히 주목되지 못한 것은 일제 강점기 문학과 해방 이후의 문학에 놓인 격차에서 비롯된 바가 컸다. 본고에서는 해방기를 전후한 박화성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문단과 문학사의 맥락과 연계함으로써 작품 경향의 상이함을 단절이 아니라 연속적인 변화로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해방 후에도 지속된 좌익문단으로부터의 소외에도 불구하고, 박화성은 전향하지 않고 목포의 지역문인들과 교류하며 후배들을 양성하였고 좌익 탄압이 강화되던 1947년 조선문학가동맹 목포지부장으로 추대되었다. 한편, 이광수와의 친교로 시작된 우익 진영 문인들과의 관계는 해방 후에도 계속되었고 이는 목포 문인들의 관계와 병행되면서 박화성 문학의 특수한 입지를 가능케 하였다. 박화성의 사랑방 ‘세한루’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목포의 문학네트워크는 좌우익을 아우른 모임이었다는 점에서 박화성 문학의 주제와 서사가 해방기를 거쳐 전이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므로 일제 말기부터 해방기를 거쳐 한국 전쟁에 이르는 시기는 박화성 문학의 공백이 아니라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면서 변화를 잠재하고 있으며 그 중심이 된 ‘목포’라는 장소는 박화성의 존재로 인해 서울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진영의 문인들과 다양한 사상을 기반으로 한 지역 문인들과의 네트워크가 겹치는 곳이라는 점에서 해방기 문학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주목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문예』, 『삼천리』, 『예술문화』, 『자유신문』, 『호남평

론』.

박화성, 『눈보라의 운하』, 芝苑社, 1970.

_____, 『박화성 단편집 고향없는 사람들』, 푸른사상, 2008.

_____, 『박화성 문학전집 14 눈보라의 운하·기행문』, 푸른사상, 2004.

_____, 서정자·김은하·남은혜 공편, 『박화성 앤솔러지 나는 여류작가다』, 푸른사상, 2021.

단행본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1945-1990』, 민음사, 1993, 53쪽; 86쪽.

구명숙 외 편, 『한국여성수필선집 1945-1953』, 역락, 2012, 172-173쪽.

김선태, 『목포문학사와 전남시단사』, 태학사, 2019, 27쪽; 34-35쪽; 39쪽.

서정자, 야마다 요시코, 송명희 공편, 『박화성, 한국 문학사를 관통하다』, 푸른사상, 2013, 456쪽.

조남현, 『한국 현대소설사 3』, 문학과지성사, 2016, 27-28쪽; 31쪽; 34쪽.

논문

김득중, 「한국전쟁 전후 육군 방첩대(CIC)의 조직과 활동」, 『사림』 36호, 수선사학회, 2010, 21-62쪽.

김영미, 「‘여성’으로서 ‘작가’가 된다는 것: 박화성의 1930년대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64호, 한국현대문학학회, 2021, 157-190면.

김윤경, 「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 군법회의의 문제점 - 노천명·조경희·이인수의 판결을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57호,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267-301쪽.

김종욱, 「일제강점기 박화성 소설의 지역성 연구-동반자작가로서의 위상과 관련하여」, 『한국현대문학연구』 제42호, 한국현대문학학회, 2014, 207-235쪽.

동선희, 「일제하 경남 지역 조선인 읍회의원에 관한 연구-1920~1945년의 지정면협·읍회의원」, 『청계사학』 20, 청계사학회, 2006, 191-212쪽.

류진희, 「해방기(1945~1948) 감정의 전환과 젠더 동학: 여성작가의 소설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28집, 구보학회, 2021, 431-459쪽.

- 박용찬, 「해방직후 조선문학가동맹의 매체투쟁과 미디어 전략」, 『국어교육연구』 제53집, 국어교육학회, 2013, 383-414쪽.
- 박태일, 「수필가 조희관과 「흑산수첩」」, 『근대서지』 제17호, 근대서지학회, 2018, 180-242쪽.
- 서승희, 「식민지 재난과 통치, 그리고 재현의 역학-박화성의 홍수 전후 한귀, 고향 없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제54집, 이화어문학회, 2021, 89-118쪽.
- 서정자, 「박화성의 해방 후 소설과 역사 의식」, 『현대소설연구』 24,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49-72쪽.
- _____, 「박화성의 「혈어진 청년회관」론 오빠-누이의 구조와 항일민족의식」, 『문명연지』 제5권 제3호, 한국문명학회, 2004, 41-55쪽.
- _____, 「박화성의 문학 지도」, 『박화성 앤솔리지 나는 여류작가다』, 서정자·김은하·남은혜 공편, 푸른사상, 2021, 363-375쪽.
- _____, 「식민지 근대도시형성과 목포 유·이민소설: 작가 박화성의 사회의식 발아와 그 근원」, 『여성문학연구』 제5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1, 153-176쪽.
- _____, 「작가 일기1-박화성의 해방공간」, 『서정시학』 Vol.32 No.2, 계간 서정시학, 2022, 300-304쪽.
- _____, 「1963년의 소영 박화성 선생-소설 짓기, 집짓기」, 『서정시학』 Vol.32 No.3, 계간 서정시학, 2022, 179-184쪽.
- 이성운, 「1926년 목포 제유노조파업의 전개과정과 역사적 의의」, 『지방사와 지방문화』 23권 1호, 역사문화학회, 2020, 79-119쪽 참고.
- 손혜민, 「단정 수립 이후 ‘전향’과 문학자의 주체구성-박영준의 해방기 작품을 중심으로」, 『사이』 제11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1, 163-191쪽.
- 이동순, 「문학과 정치 이데올로기의 관계성-작가 오성덕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91집, 중앙어문학회, 2022, 379-400쪽.
- _____, 「지역 문화예술의 들꽃, 조희관의 향기」, 『문학들』 No.32, 심미안, 2013, 109-126쪽.
- _____, 「지역 문학담론의 변모양상 연구-광주·전남 지역의 문예지를 중심으로

- 로], 『비평문학』 제67호, 한국비평문학회, 2018, 183-201쪽.
- _____, 「해방기 문단과 지역의 문학담론 지형-예술문화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60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389-411쪽.
- 이동윤, 「역사의 광풍과 진실의 동면-박화성의 「휴화산」론」, 『영주어문』 제2집, 영주어문학회, 2000, 141-160쪽.
- 이봉범, 「근대지식으로서의 사회주의와 그 문화, 문화적 표상: 단정수립 후 전향의 문화사적 연구」, 『대동문화연구』 제64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215-254쪽.
- _____, 「잡지 『신천지』의 매체 전략과 문학」, 『한국문학연구』 39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0, 199-267쪽.
- 이수나, 「해방기 정현웅의 신문소설 삽화」,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30집,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15, 35-64쪽.
- 이승철, 「광주의 문학정신과 그 뿌리를 찾아서 1-한국 근현대문학을 개척한 광주의 선각자들을 중심으로」, 『문학들』 No.33, 심미안, 2013, 81-117쪽.
- 전동진, 「잡지 담론의 근대성 연구: 『호남평론』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3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8, 133-150쪽.
- 전성현, 「일제강점기 ‘지방의회’의 ‘정치적인 것’과 한계-경남도회를 통한 식민지배와 지역정치의 마주침」, 『역사연구』 제39호, 역사학연구소, 2020, 57-99쪽.
- 전지니, 「해방기 종합지 『민성』의 매체전략 연구: 창간~1947년 중반까지의 발행본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Vol.16, 한국근대문학회, 2015, 161-203쪽.
- 전희진, 「식민지시기 문학의 장에서의 여성 작가들-2세대 여성 작가들의 작품과 삶의 경로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93집, 한국사회사학회, 2012, 5-47면.
- 조은정, 「해방 이후(1945~1950) ‘전향’과 ‘냉전 국민’의 형성: ‘전향성명서’와 문화인의 전향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차범석, 「뿌리가 있어야 열매가 맺는다-목포문학의 뿌리를 찾아서」, 목포 100년의 문학 발간추진위원회 편, 『목포 100년의 문학』, 을피, 1997, 9-14쪽.

Abstract

Park Hwa-seong's Literary Activities Before and After the Liberation Period

Nam Eunhye

Park Hwa-seong (1903-1988) wrote 17 full-length novels and 66 short stories and novellas from 1925 to 1985. However, Park Hwa-seong's literature has not received sufficient scholarly attention. This neglect stems from the perception that post-liberation literature achieved less than literature writte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Park Hwa-seong wrote no literary works from 1938 until liberation. However, this period was not a complete hiatus from literary activity. This is because Park Hwa-seong's works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have the potential for change that connects her to early and late works of literature.

In this paper, I discuss Park Hwa-seong's activities in the periods before and after liberation in the context of society and literature at that time. In the process, I bring new insight to the study of Park Hwa-seong's literary activities, which were centered in the city of Mokpo.

Although she did not write literary works, Park Hwa-seong, who tried to cultivate writers in Mokpo at that time, did not convert even after liberation and resumed the creation of her work. In 1947, when the suppression of leftists intensified, she was elected head of the Mokpo branch of the Korean Writers' Alliance. However, exchanges with writers of the nationalist camp, which took place from the time of their rise, continued after liberation. This relationship was parallel to the Mokpo literary network, which allowed Park Hwa-seong's literature to occupy a special position.

In Mokpo, the network of right-wing writers in Seoul overlapped with local writers via Park Hwa-seong. Park Hwa-seong, a local female writer, was able to avoid the extremes of the left and right literary circles, which were trying to lead the discourse of national literature at the time. Indeed, her work needs to be reevaluated in order to reveal a new aspect of national literature.

Key words: Liberation period, Gap, Giving up writing, The Korean writers alliance, Conversion, Local literature, Mokpo, Locality.

투고일 / 2023. 02. 26.
심사완료일 / 2023. 04. 04.
게재확정일 / 2023. 04. 11.